K리그1 30라운드 | 안 풀리는 제주, 울산 원정 뼈아픈 패배

15경기 무승…'삭발투혼'도 소용 없었다

전반만 3실점·베테랑 조용형 퇴장
조 감독 "조급함이 패배로 이어져"
구단과의 '불협화음'도 부진 원인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두 눈은 잔뜩 충혈됐다. 간간히 지어보인 미소조차 서글퍼 보였다. 26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30라운드 원정경기를 앞둔 제주 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의 표정은 어두웠다.

제주는 최악의 시즌 후반부를 보내고 있다. 울산 원정 이전까지 14경기 연속 무승(8무6패)이었다. 제주 선수단은 23일 강원FC와 정규리그 29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단체로 헤어 숍을 찾았다. 잃어버린 '위닝 멘탈리티'를 되찾기 위해 너도나도 머리를 짧게 잘랐다. 속살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바짝 친 일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부진은 계속됐다. 두 골을 먼저 내준 강원전을 간신히 2-2 무승부로 마쳤지만 울산 원정에서 2-3으로 패했다. 전반에만 세 골을 허용한 제주는 후반 3분 찌아구의 골로 추격을 시작했으나 베테랑 수비수 조용형의 퇴장으로 흐름이 꺾였고 15경기 연속 승수를 쌓지 못했다.

킥오프를 앞두고 "버둥거릴수록 깊은 늪에 빠지는 느낌이다. 선수단도 힘들지만 주변이 더 걱정해주고 있다. 팬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던 조 감독은 "조급함이 이른 실점과 패배로 이어진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코칭스태프, 선수단만 탓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처우를 해주지 않고 성과만 바란 구단도 잘한 것은 전혀 없다. 지난시즌 제주는 '1강' 전북 현대에 이어 리그 2위를 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도 출격해 희망을 부풀렸다.

그런데 명가 재건에 확실한 박차를 가했어야 할 제주의 행보는 의문투성이였다. 조 감독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후에야 2년 계약연장을 했다. 진작 새 시즌을 대비했어야 할 시점에 늦은 재계약으로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했다. 여론에 끌려가는 인상이 다분했다.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코칭스태프는 힘을 잃었다. 여기에 선수들은 2위에 어울리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연봉 인상폭은 지나치게 적었다. 동기부여 없이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노릇. 심지어 2018러시아월드컵에 출격한 수비수 오반석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 와슬로 이적했다. 이미 두 차례 중동 오퍼를 받은 그는 조 감독의 만류로 잔류해왔으나 이번에는 막을 길이 없었다. 전북 추격은커녕, 어려운 상황에도 모기업(현대중공업)차원의 꾸준한 관심으로 강한 선수단을 꾸린 울산과는 천지차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주는 아직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있다. 수원 삼성을 1-0으로 누른 6위 강원(승점 38)과 한 경기로 격차가 벌어졌으나 향후 3경기 결과에 따라 스플릿 라운드 그룹A(1~6위) 진입이 가능하고 FA컵 8강에 올라 정상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안 풀리는 현실을 명확히 진단해 문제를 개선하려는 구단의 노력이 없다면 반전은 요원해 보인다.

울산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프로축구 경기결과 ▶ 26일

상 주	상주	1	:	2	포항
춘 천	강원	1	:	0	수원
대 구	대구	2	:	2	경남
울 산	울산	3	:	2	제주
상 암	서울	1	:	1	인천
전 주	전북	1	:	0	전남



크로아티아 축구스타 루카 모드리치가 25일(한국시간) FI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뒤 활짝 웃고 있다. 런던 | AP뉴시스

모드리치 '올해의 선수상' 메날두 10년 제국 와르르

〈메시+호날두〉

지난 10년간 세계 축구의 양대 산맥은 리오넬 메시(31·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유벤투스)였다. 상이란 상은 이 두 명의 스타가 나눠 가졌다. 그 견고한 10년 제국을 무너뜨린 주인공이 바로 루카 모드리치(33·레알 마드리드)다.

모드리치는 2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의 '더 베스트 풋볼 어워즈 2018'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모드리치는 FIFA 가맹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기자단이 참여한 투표에서 29%의 득표율로 호날두(19%)를 따돌렸다. 1991년 제정된 이 상은 2010년부터 프랑스풋볼이 선정하는 발롱도르와 합쳐졌다가 2016년부터 다시 분리됐다. 2008년부터 메시(5회)와 호날두(5회)가 상을 양분했다. 한국을 대표해 투표에 나선 주장 기성용과 감독 대신 나선 김판곤 국가대표선임위원장 역시 모드리치를 1순위로 뽑았다.

2018년은 모드리치의 해다. 그는 2017~2018유럽축구연맹(UEFA) 챔스리그 우승과 UEFA 올해의 선수, 2018러시아월드컵 준우승과 골든볼(개인상)에 이어 또 한번 역사에 남을 수상을 했다.

러시아월드컵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비록 결승에서 프랑스에 2-4 패했지만 모드리치는 조국 크로아티아의 주장을 맡아 1998년 프랑스월드컵 4강 돌풍 이후 최고의 성적을 만들어냈다. 뛰어난 기술과 폭넓은 시야는 물론이고, 강인한 정신력과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전 세계 축구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모드리치는 "내 인생 최고의 시즌이었다. 이번 시즌 달성한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상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크로아티아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했다. 이제 남은 건 프랑스풋볼이 연말에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발롱도르다. 이 상까지 받는다면 싹쓸이가 된다. 모드리치는 화룡점정을 할 수 있을까.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인천 유나이티드 문선민(오른쪽)이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원정경기에서 전반 43분 선제골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상암 | 뉴시스

위기에 강한 전북…'강팀의 자격' 증명

로페즈 부상·아드리아노 감기몸살
전남전 후반 37분 극적골…1-0 승

강팀의 진가는 위기에서 나타난다. K리그1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전북 현대는 벼랑 끝에 몰릴수록 강해지는 팀이다. 26일 전북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전남 드래곤즈와 30라운드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전북은 시즌 내내 선두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최강 전력의 팀이다. 반면 전남은 강등위기에 놓여있다. 두 팀 간 전력만 놓고 본다면 전북의 압승이 예상되는 경기였다.

그러나 전북의 최근 상황은 좋지 않았다. 지난 19일 수원 삼성과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승부차기에서 패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 패배로 K리그1·챔피언스리그 동시 우승을 목표로 했던 선수들은 심리적인 허탈함을 적지 않게 느껴야 했다. 또한 23일 수원과의 리턴매치(K리그1 29라운드)에서는 손준호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 속에 힘겹게 사투를 벌인 끝에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수원과 두 차례 혈투로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커 이날 전남과의 경기에서는 온전한 전력을 발휘 할 수 없었다. 로페즈는 부상, 아드리아노는 감기 몸살로 인해 두 주축 외인 공격수를 쓸 수도 없었다. 게다가 수장인 최강희 감독은 출전 징계로 인해 4경기 째 벤치를 지키지 못했다.

후반 중반까지 전남과 0-0으로 맞서던 전북은 후반 37분 이동국의 패스를 받은 한교원이 결승골로 연결했다. 이 골로 1-0의 승리를 챙긴 전북은 팀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최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른 4경기에서 3승1무를 기록, 선수들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반열에 올라섰음을 증명했다.

이날 승리로 전북은 22승4무4패(승점 70)로 4위 포항 스틸러스(12승7무11패·승점43)와의 승점차를 17점까지 벌리면서 잔여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3위 자리를 확보해 상위 3개 팀에게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얻었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수원과의 2연전이 선수들의 몸 무겁게 했다. 공격수들의 부상이 많아서 내용은 불만족스럽지만 선수들이 집중을 해줘서 어려운 승점을 챙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황의조 2경기 연속골 "벤투 감독님, 보셨죠?"

J리그 시미즈전 자책골 유도+골맛
내달 두차례 평가전…벤투 2기 예약

스트라이커는 축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포지션이다.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이 한국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뒤에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포지션 역시 최전방 공격수다. 9월 벤투 감독 체제에서 치른 첫 A매치 두 경기에서는 황의조(26·감바 오사카)와 지동원(27·아우크스부르크)이 번갈아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았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다음달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 16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파나마와 평가전을 치른다.

'벤투 2기' 멤버 구성에서도 단연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황의조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에서 가공할 득점력을 뽐내며 자신의 진가를 알린 황의조는 소속팀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시미즈S펄스와의 일본 J리그 2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1분 상대 자책골을 유도한 데에 이어 전반 26분에는 직접 골을 터뜨렸다. 15일 비셀 고베와의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이다.



황의조

반면 지동원은 무릎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그는 15일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 도중 무릎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 함부르크의 황희찬(22)도 무릎 통증이 있다.

K리그1 무대로 눈을 돌리면 김신욱(30·전북 현대), 이근호(33·울산 현대) 등이 '벤투2기' 스트라이커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벤투 감독은 9월 A매치 이후 K리그 현장을 다니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확인해왔다. 그러나 J리그에서 황의조의 활약이 너무 강렬하다. 현재 추세라면 황의조는 대체 불가 스트라이커로 무난하게 대표팀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지욱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